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와 해결책

업무 환경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 대하여



목차

- 1 Intro
- 2 안전하면서도 변화에 유연한 IT 환경, 가능할까?
 - 2-1. 롱런(Long-Run)을 위한 기반 닦기, 하지만 여전한 리스크
 - 2-2. '안정성'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클라우드 전략
- 3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까?
 - 3-1. 더욱 뜨거워지는 금융 데이터 시장
 - 3-2. 데이터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전략은?
- 4 Outro

1. Intro

'혁신'은 많은 기업들이 늘 가져가고 싶어하는 키워드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금융업계에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Untact)' 바람이 불면서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한 서비스들을 출시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혁신을 위한 금융사들의 고민

중앙 집중형이었던 기존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도 점차 각각의 개인에게 연결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금융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자 할 때, 많은 금융사들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해답을 얻고자 한다.

업무 환경 효율화와 데이터
분석 전략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하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현재의 업무 및 서비스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둘, 서비스 질 향상을 돕는 방대한 양의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할 것인지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업 및 기관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배경과 존재하는 리스크들을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IT 전략과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안전하면서도 변화에 유연한 IT 환경,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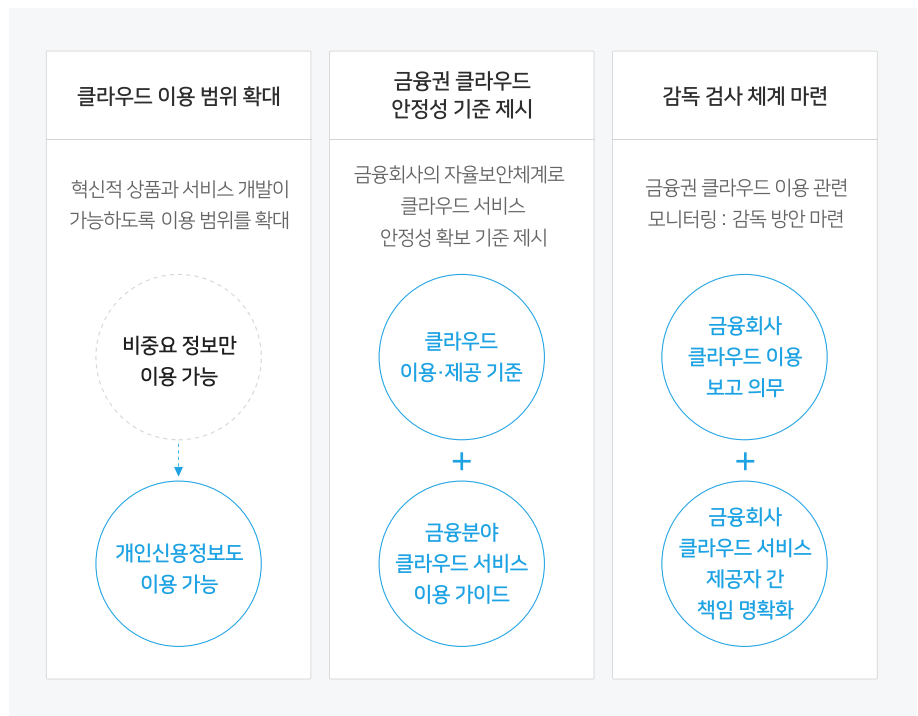
2-1. 롱런(Long-Run)을 위한 IT 기반 닦기,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

IT 인프라 설계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비스 혁신에 앞서, IT 인프라 설계 및 비용 효율화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하면서도 신속한 확장이 가능한 IT 환경을 확보하면서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걸림돌 없는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바로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는 방금 언급한 요소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권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문이 조금 더 열리게 됐다. 기존에는 정보 보안을 위한 정부 규제의 영향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비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19년 1월,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 신용정보로까지 확대됐다. 이때 금융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와 감독 검사 체계도 만들어지는 등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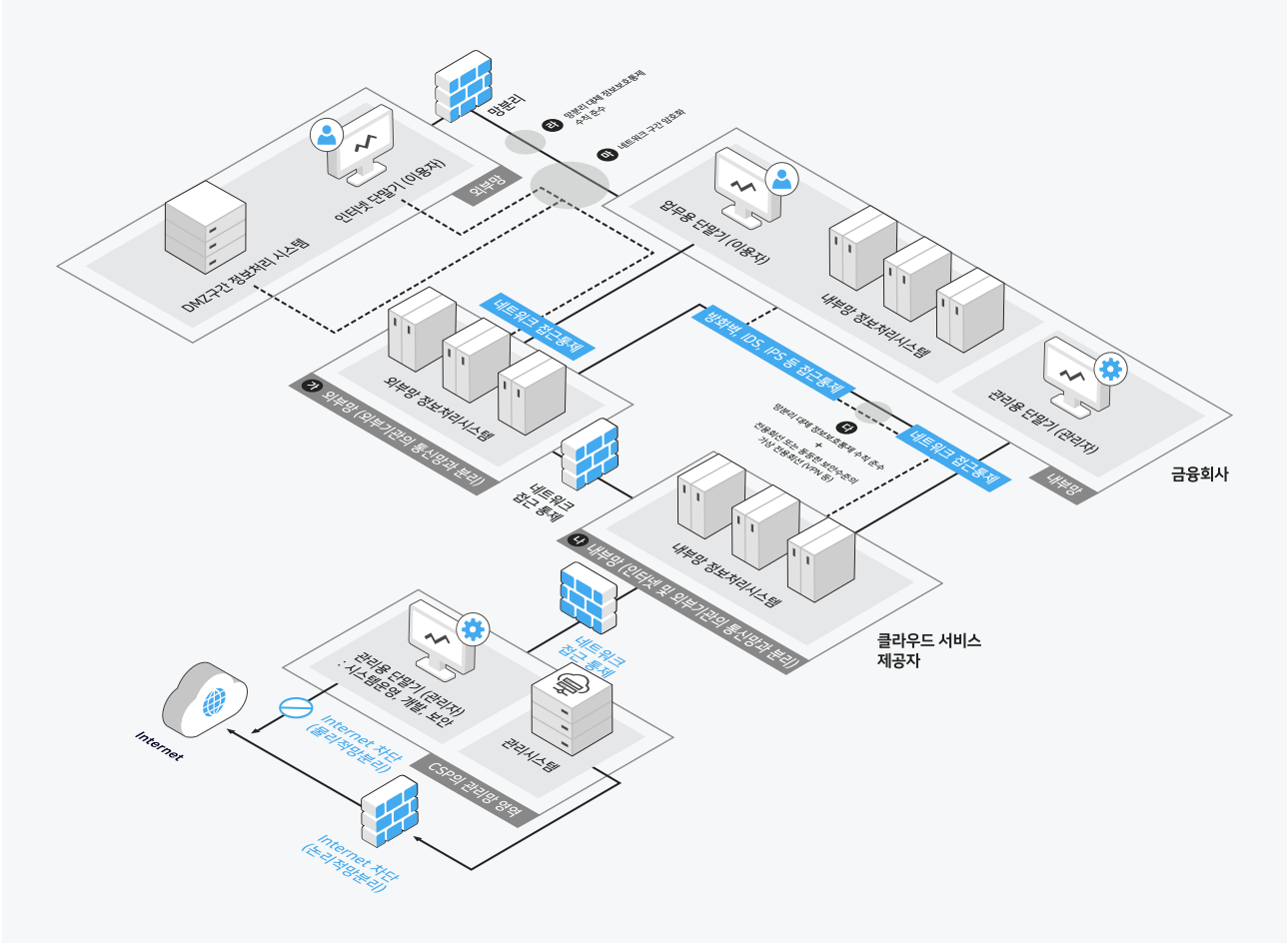
[그림 : 19년 1월 전자 금융 감독 규정 개정 내용]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 시 정보보안 등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를 적용할 때 여전히 망설인다. 선불리 클라우드를 도입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해당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안정성'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금융권의 리스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그림 : 전자감독규정에서 제시하는 금융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도]

금융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는 클라우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위의 개념도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여야만, 금융권에서 고민하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만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와 망 분리 등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위와 같은 정책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감독기관의 보안감사나 심의 등을 통과할 수 없어 서비스 자체가 불가하다.

금융 클라우드 리스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eurocloud'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하 NBP)은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Neurocloud 솔루션을 선보였다.

Neurocloud는 보안규제를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다.

Neurocloud는 이름 그대로 클라우드 자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나 회사의 데이터 보안 규제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곳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IT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온프레미스 기반의 IT 자원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객 전용 클라우드 존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면서, 중요 데이터는 고객 사내망에서 처리되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고객은 Neurocloud를 통해 정보 보안 심의를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Neurocloud는 데이터 센터가 없는 고객을 위해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도 제공한다.

고객이 가진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해 Neurocloud는 공급 형태에 따른 두개의 옵션을 제공한다. 고객사가 이미 별도의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치된 서버와 랙을 제공하고, 서버 운영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고객에게는 컨테이너 형태의 작은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와 랙을 설치하여 통으로 설치 제공한다. 이렇게 공급된 Neurocloud는 하드웨어, 플랫폼, 각종 서비스 상태까지 NBP에서 원격으로 관리하여 고객은 IT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형태로 제공되는 Neurocloud - '스마트 서버 팜(SMART SERVER FARM)']

한화생명 은 자사의 핵심 기간계 업무 플랫폼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eurocloud로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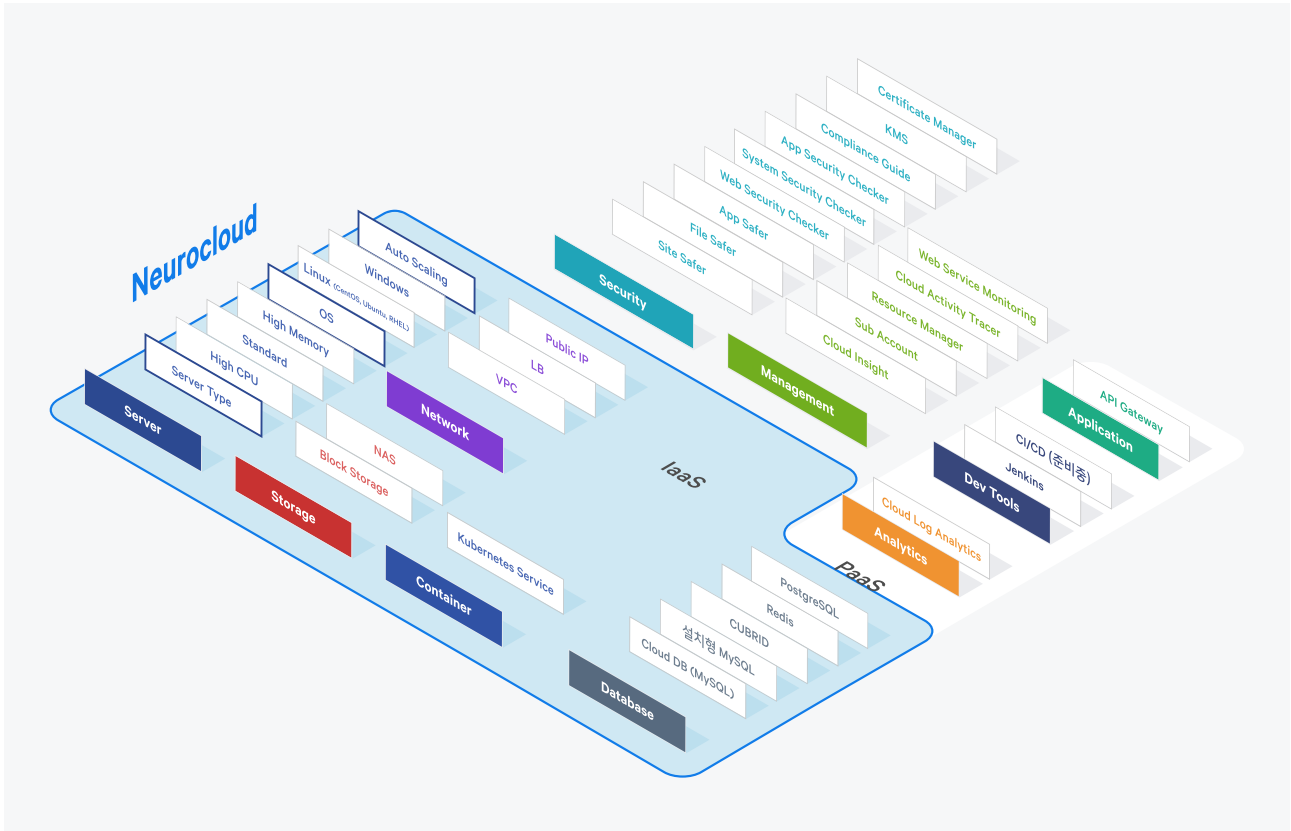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한다.

Neurocloud를 통해 신기술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전 산업군에 도입 효과가 크다.

실제로 Neurocloud 서비스를 통해 최근 한화생명은 자사의 핵심 기간계 업무 플랫폼인 보험코어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시장의 디지털 서비스 경쟁을 주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플랫폼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NBP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Neurocloud는 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 적용 가능하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상품, 보안 상품, 관리도구 상품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서비스 고도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보안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모든 기업 및 기관에게 Neurocloud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림 : Neurocloud에 탑재 가능한 서비스 구성도 / 주요 IaaS 및 PaaS 서비스는 Neurocloud 상에서 데이터가 처리 및 저장되고, 그 외 PaaS, Management, Security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수행 및 저장된다.]

3.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까?

3-1. 더욱 뜨거워지는 금융 데이터 시장

데이터가 기업에게 주는 비즈니스 기회는 크다.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정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가 기업에게 주는 비즈니스 기회는 크다.

*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률이 가장 높은 산업군이다.

금융권에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 실제 고객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국내의 많은 리서치 결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률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금융 업종이 꼽히는 부분도 이러한 움직임을 대변한다.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점점 더 높아지는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 민감한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빈틈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위해 어떤 IT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2. 데이터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전략은?

데이터 분석 환경이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기업이 보유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다루고자 하였다면, 클라우드의 등장 이후, 지금은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있다. 과거에 비해 민감한 데이터를 잘 필터링하고 보호하는 역량이 증가했고,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을
선택할 때에는 보안성과
고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여주는 높은 보안성, 그리고 (2) 방대한 데이터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능이다.

어느 산업군보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금융권에서는 정보 손실, 유출 등 데이터에 대한 모든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고성능 플랫폼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놓치면 안되고, 이를 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

이러한 포인트를 숙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국에 플랫폼을 둔 클라우드인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야 할
시 자국에 플랫폼을 둔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한다.

데이터가 다루지는 플랫폼이 자국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는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 포인트이지만, 사실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업에게는 아직까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보 가치가 월등히 높아진 만큼 투명한 환경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개인 정보는 무조건 자국에 플랫폼을 둔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자산일수록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주거래 은행을 국내 은행이 아닌, 글로벌 은행에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통제하기 쉬운 국내 은행에 주요 자산을 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가면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지만, 데이터가 흐르는 클라우드는 여전히 해외 기업의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중에 데이터 유실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해외 클라우드가 이에 대해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해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믿을 만한 클라우드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기술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금융권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이다.

(2)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인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경쟁력은 높은 보안성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의 서비스를 어필할 때 높은 보안성을 강조한다.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경쟁력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지켜내는 보안 기술력인 것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과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BP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중 가장 공격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보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NBP는 규정이 까다로운 공공, 금융, 의료 관련 데이터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음을 여러 인증을 통해 입증 받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인 CSA Star Gold 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융 전용 클라우드에 대한 SOC 인증 취득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시 필요한 요건 충족은 물론, 가산점 획득도 가능할 정도로 정보 보안 수준이 높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공공 클라우드 인증(ISMS-P)과 ISO 27001 인증(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규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 CSAP인증(IaaS, SaaS)도 획득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만 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 NB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보안 인증 현황]

(3)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가능한가?

NBP는 각 고객의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밀접한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레거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IT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에 더해 각 기업의 서비스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밀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300만 동접 수용 가능한 온라인 개학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최근 화두가 된 온라인 개학 이슈에서 NBP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접속 3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전담 TF를 구성해 24시간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지만 개발, 보안, 운영 등 전 분야의 전문가 50명이 힘을 모아 전국의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시청을 도왔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면 IT 서비스 운영 리소스 절감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규모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NBP의 서비스 운영 역량은 기업의 IT 서비스 운영 리소스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4. Outro

클라우드 전문가와 함께 '혁신'과 '안정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IT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변화를 추구하면서 안정성을 잃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넘어야 하는 규제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고려하면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당장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본 리포트에서 언급한 포인트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혁신'과 '안정성'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IT 전략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



고객지원 대표전화 : 1544-5876 | 공식 포털 사이트 : www.ncloud.com

이 리포트의 모든 권한은 NAVER Business Platform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없이 리포트에 실린 원고, 사진, 그림 등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NAVER Business Platform Corp. All Rights Reserved.